

CFE REPORT

CFE Report

2020. 04. 29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송원근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요 약>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전염력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어 팬데믹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봉쇄(lockdown)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한국경제도 1분기 성장률이 이미 -1.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기업들의 파산, 급속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팬데믹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으로 향후의 팬데믹 전개과정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나타난 팬데믹 중 기간, 사망률, 경제적 충격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소위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다. 경제적 충격은 세계 GDP를 5%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GNI의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팬데믹들은 예외 없이 2차례 이상의 대유행이 나타났으며 백신 개발 및 보급시기, 면역여부에 따라 그 충격이 차별적이었다.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팬데믹의 심각성에 비례하나, 특히 팬데믹의 기간이 길수록 충격이 컸다. 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회피에 따른 효과가 경제적 충격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이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고 이는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는 전염력과 전염속도, 사망률이 매우 높고 이전까지 팬데믹의 원인이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속도가 빨라 대유행 기간도 그만큼 짧을 가능성이 있으나 백신 및 치료제의 부재, 2차 대유행의 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어 속단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경우 공급측면 충격보다 감염회피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의 충격이 월등히

커 경제적 충격은 수요 감소의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존 연구의 추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충격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그 강도가 덜할 것으로 전망되나 2차 대유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IMF의 한국경제 전망(2020년 -1.2%, 2021년 3.4%의 GDP 성장률)보다 악화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은 먼저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수요 감소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생활방역의 정착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개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한 임시적 지원이 필요하나 재난적 상황에서의 긴급한 지원이 영구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파산을 막고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필요하데 한국은행이 RP 매입 대상을 회사채 및 CP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장기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시한을 정해두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및 “언택트(untact)”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이 등장하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신산업의 규제 틀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도 요구된다.

## <목 차>

### I. 서론

### II. 팬데믹 효과의 역사적 경험

1.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의 추억
2. 기타 팬데믹 및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
3. 팬데믹의 특징

### III. 코로나19의 차별성과 경제적 효과 전망

1. 코로나19의 특징과 차별성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

### I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I 서론

-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전의 바이러스 혹은 인플루엔자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전염력으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단계에 이름.
  - ▶ 2020년 4월 28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21만 명에 이르러 치명률(fatality rate)이 7.0%.
  - ▶ 바이러스 감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전파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치명률(fatality rate)도 이전의 인플루엔자 유행의 경우보다 훨씬 높음.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봉쇄(lockdown)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예상
  - ▶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4주간 2,200만 명, 3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도 전기 대비 역대 최대 감소 기록
  - ▶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6.8% 기록, 한국의 1분기 성장률도 -1.4% 기록
  - ▶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세계경제 GDP 규모 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2020년 한국의 GDP 성장률도 -1.2%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감염병의 대유행에 의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 팬데믹의 전염력, 전염 속도, 치명률의 차이점, 백신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유행기간도 차별적
  - ▶ 코로나19의 경우 백신 개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2차 대유행의 가능성으로 예측이 더 어려움.
  
- 팬데믹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유추해야 함.
  - ▶ 20세기에는 3차례의 팬데믹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음.
  - ▶ 20세기 팬데믹에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스페인 독감(1918~1920)을 비롯해 아시아 독감(1957~1958), 홍콩 독감(1968~1969)이 있었음.
  - ▶ 개별 팬데믹의 특성과 충격의 정도를 비교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책은 방역과 경기침체의 상충(tradeoff)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함.
  - ▶ 감염병 확산을 막고 대유행 기간 단축을 위한 방역이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
  - ▶ 그러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수요 감소를 통해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줌.
  - ▶ 따라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정책은 경기침체곡선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킬 수 있음.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렇게 긴급한 재난의 기간 동안 기업 파산과 개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적 완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해야 함.

## II 팬데믹 효과의 역사적 경험

### 1. “스페인 독감<sup>1)</sup>(Spanish Flu)”의 추억

- 수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심대한 경제적 충격을 준 감염병 팬데믹은 20세기에 세 차례 창궐
  - ▶ 스페인 독감(1918~1920), 아시아 독감(1957~1958), 그리고 홍콩 독감(1968~1969)
  - ▶ 1918년 시작되어 1920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독감이 감염자수, 사망자수, 치명률, 기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줌.
  - ▶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백만 명 이상 발생한 팬데믹이었지만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는 완화된 팬데믹으로 평가
  
- 스페인 독감(1918년 팬데믹)의 전개 양상
  - ▶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발생하여 그 해에 정점을 찍고 1920년까지 지속
  - ▶ 3차에 걸친 대유행
    - ① 1차 대유행: 1918년 봄
    - ② 2차 대유행: 1918년 9월 ~ 1919년 1월. 가장 치명적이었던 대유행
    - ③ 3차 대유행: 1919년 2월 ~ 1920년 6월
  - ▶ 1차와 2차 대유행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대규모의 병력 이동 및 국가 간 이동으로 감염의 확산이 증폭됨.
  - ▶ 1년 반에 걸친 3차 대유행은 항공운송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의 상대적으로 느린 전염 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스페인 독감의 특징 및 피해 규모
  - ▶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에 기반한 공기 감염 전염병
  - ▶ 기존 병력이 없던 청년 세대의 감염, 사망률이 높았던 점이 스페인 독감의 비정상적 특징
  - ▶ 전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되었고 인구 대비 사망률은 2~3%로 추정되어 대략 전 세계적으로 2천만~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1)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이유는 스페인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여서도 아니고 사망률이 높아서도 아님. 단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던 스페인은 참전국들에 비해 보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언론의 주목과 보도가 스페인에서 많았던 점이 인플루엔자 이름에 스페인이 들어가게 된 연유임.

- ▶ Barro외(2020)의 추정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3천9백만 명 가량 사망하였고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2%에 해당
- 추산된 총 사망자 3천9백만 명 중 1918년 2천6백4십만 명, 1919년 9백4십만 명, 1920년 3백1십만 명
- 치명률을 현재 인구로 계산하면 사망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함.
- Fan, Jamison, Summers(2016)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사망률은 현재 인구 기준 8천만~1억 2천5백만 명으로 추산

● 스페인 독감의 경제적 충격

- ▶ World Bank(2008, 2014)의 연구들은 1918년 팬데믹이 세계 GDP를 약 5%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 이 중 감염회피에 따른 교란효과가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 Barro외(2020)에서는 1918년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이 GDP 6% 감소, 소비 8% 감소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
- ▶ 스페인 독감에 의해 약 10%의 GDP 감소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산하는 다른 연구들도 존재하고, McKibben and Sidorenko(2006)는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 전 세계 GNI의 12% 감소하고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50% 이상의 소득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2. 기타 팬데믹 및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

● 아시아 독감(Asian Flu): 1957~1958

- ▶ 아시아 독감(1957년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2N2 type.
- ▶ 1957년 2월 중국에서 발생하여 그해 여름 전 세계적으로 확산
- ▶ 1957년 10월 1차 대유행, 1958년 1~2월 2차 대유행. 사망자는 적어도 1백만 명 이상 혹은 2백만 명 가량으로 추산됨<sup>2)</sup>.
- ▶ World Bank(2014)는 아시아 독감으로 세계 GDP 약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 1957년도 하반기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5% 하락. 참고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다우존스지수는 30% 이상 하락한 후 절반 정도 회복
- ▶ 아시아 독감은 신속한 백신의 개발 및 보급, 2차 감염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으로 팬데믹의 확산과 사망자 급증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2) 미국 CDC는 전 세계적으로 약 1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평가

- ▶ 팬데믹의 원인이 된 H2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68년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3N2 type으로 변형되어 1968년 팬데믹 발생의 원인이 됨.

● 홍콩 독감(Hong Kong Flu): 1968~1969

- ▶ 1968년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3N2 type
- ▶ 1968년 7월 홍콩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이러스는 그해 12월과 다음해인 1969년 1월에 정점에 도달
- ▶ 1차와 2차 대유행이 있었으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
- ※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원인으로서는 같은 N2 바이러스인 아시아 독감에 대한 면역이 있었던 점, 정점에 달하기 전 겨울방학으로 확산이 제약된 점, 2차 감염에 효과적인 항생제의 보급 등이 거론됨.
- ▶ 이후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절성 독감으로 전이되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음.
- ▶ 1968년 팬데믹(홍콩 독감)은 20세기 3차례의 팬데믹 중 가장 약한 경우로 세계 GDP 약 0.7% 감소한 것으로 추정
- ※ 팬데믹의 기간이 짧았고 사망률이 낮았던 점이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 ▶ 2009년 팬데믹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 type
- ▶ 2009년 4월 미국에서 처음 나타난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 말까지 2차례의 유행이 있었으나 감염률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전 세계 인구의 11~21% 가량 감염되어 약 20만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 이는 이전 어떤 팬데믹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매년 유행하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교해 보아도 감염률은 유사하고 사망자는 오히려 적었음.
- ※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았는데 이는 195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H1N1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
- ▶ 백신의 신속한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확산이 억제되면서 2010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

- ▶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결과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수준의 감염병으로 판명되었고 백신과 치료제의 존재로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3. 팬데믹의 특징

- 20세기 이후 나타난 팬데믹들은 전염력, 감염률, 치명률에 있어서 일정하지 않고 차별적임.
  - ▶ 전염력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 20세기 팬데믹들은 유사한 수준
  - ▶ 감염률은 1918년 팬데믹(스페인 독감)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으나 1957년, 1968년 팬데믹, 그리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는 감염률에서 큰 차이가 없음.
  - ▶ 치명률은 1918년 팬데믹이 월등히 높고 나머지 팬데믹들의 치명률은 1918년 팬데믹의 1/100에도 못 미침.
- 팬데믹들은 예외 없이 2차례 이상의 대유행이 나타남.
  - ▶ 스페인 독감(1918년 팬데믹)의 경우에만 3차례의 대유행이 있었음.
  - ▶ 두 번째 대유행이 오는 시기는 주로 겨울철이고 2차 대유행이 항상 가장 치명적임.
-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시기와 면역 여부에 따라 팬데믹이 차별적
  - ▶ 1957년 팬데믹(아시아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는 신속한 백신의 개발 및 보급으로 감염과 사망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음.
  - ▶ 1968년 팬데믹(홍콩 독감)의 경우 아시아 독감의 H2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면역력이 있었던 점이 팬데믹의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함.
-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팬데믹의 심각성에 비례하나, 특히 팬데믹의 기간이 길수록 충격이 큼.
  - ▶ 감염률, 치명률이 월등히 높고 3차에 걸쳐 대유행으로 장기간 지속되었던 1918년 팬데믹(스페인 독감)의 경제적 충격이 가장 컸을 것으로 추산됨.
  - ▶ 1957년 팬데믹(아시아 독감)의 경우 1968년 팬데믹(홍콩 독감)의 경우와 감염률, 치명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GDP 감소는 아시아 독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남. 이는 팬데믹의 기간의 길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 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회피에 따른 효과가 경제적 충격의 60%를 차지함. 즉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고 이는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짐.

### III 코로나19의 차별성과 경제적 효과 전망

#### 1. 코로나19의 특징과 차별성

- 코로나19는 전염력과 전염속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 바이러스
  - ▶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급속도로 확산됨.
  - ▶ 전염의 경로도 단순한 유증상자와 접촉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공기 감염, 그리고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등으로 전염력(중위  $R_0^3$ ) = 5.7)과 전염속도가 매우 높음.
  - ▶ 감염자(확진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7%로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는 면역의 수준이 낮아 항체 형성이 어렵다는 평가
  
- 코로나19는 지금까지 팬데믹의 원인이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 ▶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달리 단기적인 대유행 후 급격히 사라지는 특성을 보여 왔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미미한 수준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기고 항체가 형성되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함.
  - ▶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한 전망
  - ▶ 전염력이 높고 전염속도도 빨라 대유행 기간도 그만큼 짧을 가능성이 있음.
  - ▶ 다만 높은 전염력 및 높은 치명률로 인한 대책인 봉쇄(lockdown)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시행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한동안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기간은 장기화될 수 있음.
  - ▶ 20세기 후반기의 두 차례의 팬데믹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개발 및 보급으로 팬데믹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사스, 메르스 등)에

3)  $R_0$ 는 감염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재생산지수라고 하며,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고 단기간에 개발, 보급될 전망도 낮아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가능성

- ▶ 20세기에 있었던 3차례의 팬데믹, 그리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경우 예외 없이 2차 대유행이 있었고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하여 훨씬 치명적이었음.
- ▶ 팬데믹의 역사적 경험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이 늘어나는 겨울철의 특성을 고려하면 2020년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경우 2차 유행이 나타난 경우가 없어 코로나19의 경우도 2차 대유행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된 경우도 처음이므로 여전히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의 파급 경로

- ▶ 경제적 충격은 공급부문의 충격과 수요부문의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공급부문의 충격은 감염으로 인한 노동중단, 사망, 그리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동중단의 세 가지 유형의 노동공급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 ※ 노동공급의 감소 → 생산 감소 → GDP 감소
- ▶ 수요부문의 충격은 국제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감소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감염 회피와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의한 국내수요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 ※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사람들의 행태가 감염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 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등에 대한 국내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른 봉쇄(lockdown) 효과로 국제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GDP 감소로 나타날 것임.
  - ▶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급격한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음.
  - ※ 주요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지표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되었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줌.
  - ▶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스페인 독감) 수준의 팬데믹이 미칠 경제적 충격에 대한 World Bank(2014)와 Barro외(2020)의 추정은 사망률로 나타나는 팬데믹의 심각성에 높은 정(+)의 비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는 감염으로 인한 노동중단, 사망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 생산 감소라는 공급측면의 충격보다 감염회피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의 충격이 월등히 클 것으로 예측됨.
  - ※ Barro외(2020)에서는 코로나19의 경우 감염확산의 방지를 위한 정책이 실질 GDP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명과 경제의 상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Barro외(2020)에서 추정한 1918 인플루엔자 수준의 팬데믹의 경제적 효과인 GDP 6% 감소, 소비 8% 감소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 World Bank(2014)에서는 1918년 인플루엔자 수준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전 세계 GDP를 5% 감소시키고 이 중 감염회피에 따른 교란효과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코로나19의 경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감염회피에 따른 교란효과의 비중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초과할 것이고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도 World Bank(2014)의 추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전망
  - ▶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이고 선진국 평균 GDP 성장률은 -6.1%,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1.2%
  - ▶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은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대한 생산중단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성장률에 반영된 것
  - ▶ IMF는 2021년 세계경제가 반등하여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선진국 평균은 4.5%, 한국의 GDP 성장률은 3.4%가 될 것으로 전망.
  - ※ 2021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세계경제, 선진국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 IMF의 2020년과 2021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충격이 2020년 2분기에 절정에 달하고 팬데믹이 하반기에 사라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 ※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봉쇄(lockdown) 정책이 하반기에는 완화되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
- ※ IMF의 경제 전망은 각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추정된 전망
- ※ 결론적으로 IMF 경제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는 2차 대유행도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정책도 하반기에 완화되며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추정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 ▶ 가을 이후 2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방역 정책(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이 2020년 하반기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세계경제와 한국의 2020년, 2021년 GDP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훨씬 악화될 것임.
- ▶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한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은 거의 없음.
- ▶ 또한 해외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1차 대유행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 2차 대유행에 따른 해외수요의 감소는 외생적인 변수로 정책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적 요인에 대해서는 정책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IV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에 의한 수요 감소로 나타나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대응 필요
  - ▶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고 감염위험을 감소시켜 수요 감소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 ※ 방역과 경제, 경기상황은 상충관계로 방역정책이 강력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은 더 강화되어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의 정도가 더 심해짐. 그러나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에 따른 감염 확산의 제어는 수요 감소의 기간을 단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2020년 2분기에 확실하게 억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따라서 방역의 생활화 및 생활방역의 정착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완화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 축소에 따른 파산 및 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
  - ▶ 재정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
  - ▶ 경제활동 축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개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한 임시적 지원도 필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상황에서의 긴급한 지원이 영구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상위 30% 지급여부 논란은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편적 지급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화의 선례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 경제활동 축소에 따른 기업의 파산을 막고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
  - ▶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제로금리, 양적완화에 더해 회사채 매입, 중소기업 급여대출 프로그램까지 유동성을 전방위로 공급
  - ▶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연준과 같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은 고려해 볼 필요



- ▶ 한국은행은 지난 3월부터 RP 매매 대상 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매매 대상도 한전, 주금공 등 일부 공기업 채권까지 확대
  - ▶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RP 매매 대상에 비금융 일반 기업의 회사채나 CP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시한을 정해두어야 함.
-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
    - ▶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의 확대와 같은 근로 공간 및 시간의 다양화 등 기존의 노동법 및 제도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채용 및 해고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이 필요
  -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 ▶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생태계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및 “언택트(untact)”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이 등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신산업의 규제 틀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됨.
- ※ 교육, 의료,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규제, 예를 들면 대학의 온라인강의 비율 규제, 원격진료의 금지 등이 언택트 방식의 보편화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참고 문헌

- 조경엽 · 송원근(2009),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 Barro, R.J., J.F. Ursua and J. Weng(2020), “The Corona Virus and The Great Influenza Pandemic: Lessons from the ” Spanish Flu “ for the Corono Virus’ s Potential Effects on Mortality and Economic Activity” , NBER Working Paper 26866
- Bobashev, G., Cropper, M.L., Epstein, J.M., Goedecke, D.M., Hurton, S., and M. Over(2011), “Policy Response to Pandemic Influenza: The Value of Collective Action” , NBER Working Paper 17195
- Fan, V.Y., Jamison, D.T., and L.H. Summers(2016), “The Inclusive Cost of Pandemic Influenza Risk” , NBER Working Paper 22137
- Guerrieri, V., Lorenzoni, G., Straub, L., and I. Werning(2020),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Covid-19: Can Negative Supply Shocks cause Demand Shortages?” , NBER Working Paper 2691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 1 The Great Lockdown” , April 2020
- Jorda, O., Singh, S.R., and A.M. Taylor(2020), “Longer-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 NBER Working Paper 26934
- McKibbin, W.J. and A.A. Sidorenko(2006), “Global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 Influenza” ,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 Taubenbergen, J.K. and D.M. Morens(2006), “1918 Influenza: The Mother of All Pandemics” ,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2(1), pp.15-22
- World Bank(2014), “Pandemic Risk” , *World Development Report Background Paper* by Olga B. Jonas